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분석

홍 민 (북한연구실장)

Online Series

2020. 10.12. | CO 20-26

북한의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은 형식과 내용, 등장 무기에서 기존과는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형식을 취했다.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무하는 차원과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인민에 대한 감사 표시, 코로나19 투쟁에서의 승리, 대남 유화메시지, 전쟁억제력 강화 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비상방역', '혹심한 자연피해' 등과 싸우며 헌신하는 인민들과 군대에 대한 감사에 연설의 3분의 1을 할애했다. 이례적으로 대남메시지가 짧지만 강렬하게 발신됐다. 당장의 대화보다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한 남북관계 카드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핵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 없이 '전쟁억제력'이란 순화된 표현으로 향후 불확실한 대외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지만, 신종 무기 등장을 통해 우회적인 대미 압박 의도 역시 보여줬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오후 7시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녹화방송 했다. 2시간 16분 정도로 편집된 이 영상의 실제 행사는 10일 새벽까지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열병식은 '특색 있는' 행사를 주문했던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기존과 다른 야간 시간대, 다채로운 시각효과와 이미지 연출, 30분에 달하는 장시간 연설과 이례적인 대내외 메시지 발신, 신종 무기 중심의 장비 등장 등 전반적으로 기존 열병식과는 다른 형식을 보여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크게 네 가지 메시지로 구성됐다. 인민에 대한 감사 표시, 코로나19 투쟁에서의 승리, 대남 유화메시지, 전쟁억제력 강화 등이다.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비상방역, ‘혹심한 자연피해’ 등과 싸우며 헌신하는 인민들과 군대에 대한 감사에 연설의 3분의 1을 할애했다. 이례적으로 대남메시지가 짧지만 강렬하게 발신됐다. 핵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 없이 ‘전쟁억제력’이란 순화된 표현으로 향후 불확실한 대외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지만, 신종 무기 등장을 통해 우회적인 대미 압박 의도 역시 보여줬다.

야간 시간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특색 있는’ 행사에 초점

이번 열병식은 형식의 측면에서 시각적 효과와 다채로운 이미지 연출에 각별한 기획 노력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 시대 총 9회의 열병식 중 처음으로 야간 시간대를 선택했다. 서사적인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듯 남녀 내레이션과 다양한 카메라 앵글과 조명을 사용했다. 대동강 분수,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개선문, 만수대 언덕,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등 평양의 랜드마크들을 보여주는 드론 및 항공촬영 기법도 적극 동원했다. 대규모 종대의 열병 및 무기들의 행진을 속도감 있게 편집하였고 축포와 불꽃놀이, 에어쇼 등 야간 행사의 시각적 장점을 적극 활용했다. 기존에 외빈들과 외신기자로 가득 찼던 관람석은 평양시민과 전국 경축대표들로 채우는 한편 대형 전광판 스크린을 통해 행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표 1> 김정은 시대 열병식 행사 노동신문 게재 사진 수

기념일	2020. 10.10.	2018. 9.9.	2018. 2.8.	2017. 4.15.	2015. 10.10.	2013. 9.9.	2013. 7.27.	2013. 4.25.	2012. 4.15.
사진 수	127	94	100	78	38	12	18	2	42
무기사진수	62	14	41	25	8	2	4	0	11

이번 행사를 보도한 10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행사사진 수는 127장으로 201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일 행사 94장, 2018년 2월 8일 건군절 행사 100장, 2017년 4월 15일 78장 등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만큼 이미지 효과에 주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이후 행사 보도사진 수의 증가는 전략무기의 개발과 종류가 증가하는 것과는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열병식 보도사진 127개 중 무기사진은 62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야간 행사를 진행한 이유는 우선 이 무기들을 조명효과를 통해 보다 위력적이고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공을 수놓는 화려한 에어쇼와 불꽃놀이 등 축제 분위기 연출을 통해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평양 시민들을 위무하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으로 코로나19로 외신기자나 외빈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화려한 불거리와 행사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편집해 대외에 알리려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민에 대한 감사 속에 담겨진 위기인식과 통치 부담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크게 네 가지 메시지로 구성됐다. (1) 인민에 대한 감사, (2) 방역 성공, (3) 대남 화해, (4) 자위적 전쟁억제력 등의 메시지다. 당창건 70주년 연설이나 기존 열병식 연설이 당이나 공화국, 군의 역사와 위업 등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이번 연설은 내용적으로 차별적인 구성이다. 우선 이번 연설은 이례적으로 각종 어려움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감사에 3분의 1 가량을 할애했다. 인민과 군대에 대한 ‘최대경의’,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언급했다. 이번 행사와 연설은 코로나19, 자연재해, 대북제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위무와 결속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다소 감정적인 복받침이 섞인 감사의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 책임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통치의 어려움, 부담감, 스트레스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현 상황에 대한 솔직한 인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엄청난 도전과 장애’, ‘온갖 재앙들’, ‘사상 초유의 대재앙’, ‘고민과 두려움’ 등 통치 환경이 엄중한 상황임을 표현한 대목들이다. 그 원인으로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비상방역’, ‘혹심한 자연피해 복구’ 등을 들었다. 각별한 감사 표현은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민들의 심리적 좌절감이나 이완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성찰적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제대로 한 번 보답을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거나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 생활상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보내달라는 당부에서 나타난다.

대남 화해 메시지를 통한 대외적 불확실성 관리

이번 김 위원장 연설에서 단연 하이라이트는 대남 화해 메시지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 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짧은 언급이었지만, 정세 관리 측면에서 보면,

의미심장하다. 6월 대적행동계획 공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어업지도원 피살사건 등 호전적이고 강경한 대남 태도에 비추면, 일종의 대남전략의 ‘전환’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남북 정상 사이의 친서 교환,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에 대한 전격적인 사과 등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번 메시지는 확실하게 남북관계를 ‘화해’ 쪽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전환하였음을 지도자의 욕성으로 선언하는 효과를 갖는다.

사실상 6월 대적행동계획을 철회하고 여건 조성에 따라 남북관계를 재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지도자의 입을 통해 선언한 것이다. 이면에는 조성된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유효하게 남겨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이 최소 2021년 상반기까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 기간 남북관계를 적절하게 화해모드로 관리하여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6.12 북미공동성명과 지금까지의 북미협상 구도를 차기 미국 행정부가 계승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관된 한국정부의 화해 신호와 종전선언 환기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위기’ 극복을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언급한 이상 연말과 내년 초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추세(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따라 본격적인 대화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방역을 내걸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통제 수준이 대화 재개 시점을 좌우하는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대선과 대통령 취임식 등을 경유하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라인 인선과 대북정책의 윤곽을 보면서, 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의 시점과 수준을 저울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활용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 이후부터 내년 1/4분기 사이 북미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제거하는 길잡이, 가교 역할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및 종전선언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 북한의 관심과 북미의 접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쟁억제력 강조 통한 우회적 대미 압박 메시지 발신

이번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관련 직접 발언을 자제한 채 이를 대체하는 ‘전쟁억제력’이란 표현을 썼다. 전쟁억제력은 맥락상 핵전쟁억제력, 전략무기 개발과 같은 뜻이다. 대미 메시지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북미협상에서 결정적 변화가 없다면 북한의 전쟁억제력 강화는 계속될 것이란 것이다. 다만 자신들의 전쟁억제력은 적대세력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한 자위적 정당방위수단이며 평화를 위한 것이지 남용되거나 선제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2019년 12월 28일 개최된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대미 장기전 속에서 전략무기 개발 지속이라는 결정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다. 더 나아가 2017년까지 북한이 표명했던 소위 상대가 침략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독트린의 재언급에 해당한다.

다만, 미국의 변화가 없다면, 군사력을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속도, 양과 질적 측면에서 계속 진화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대미 압박 메시지의 성격을 갖는다. 연설에서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적대세력’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해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미국의 차기 정부에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환기시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연설과 달리 노동신문 행사 보도내용에는 ‘자위적 핵억제력’, ‘최신형의 전략무기체계’, ‘대륙간탄도로켓’, ‘핵전략무력’ 등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압박 수위를 일정하게 끌어올린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의 종류는 2015년 이후 열병식보다 많다고 볼 수 없으나, 신종 무기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압박 메시지를 보내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전략무기 진화와 전력구조 개편을 과시하는 무대

이번 열병식에서 식별된 등장 무기는 26종 220여대로 확인된다. 규모면에서는 2013년 7월 27일이나 2015년 10월 10일 열병식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규모다. 다만 등장무기 다양성과 위력 측면에서는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김정은 시대 열병식 식별 무기 종류와 규모

기념일	2020. 10.10.	2018. 9.9.	2018. 2.8.	2017. 4.15.	2015. 10.10.	2013. 9.9.	2013. 7.27.	2013. 4.25.	2012. 4.15.
식별무기 규모	26종 220여대	17종 140여대	17종 130여대	22종 160여대	31종 290여대	2종 20여대	38종 280여대	0	37종 500여대
무기사진수	62	14	41	25	8	2	4	0	11

※ 위 숫자는 열병식 영상을 토대로 식별/추정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위 무기 종류와 대수에는 항공기도 포함.

※ 2013.4.25.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된 무기가 등장하지 않는 조선인민군 예식 열병임.

크게 세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첫째,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의 등장이다. 기존 화성-15형보다 길이가 3m 가량 늘어나고, 직경이 굵어졌다. 이동식발사차량의 바퀴가 11축 22륜으로 기존에 가장 컸던 화성-15형의 9축 18륜보다 크다. 관측된 크기만으로는 전 세계 현존하는 ICBM 중 가장 큰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또한 탄두 부분의 모양으로 봐서 다탄두(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s) 탑재형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실험발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무기로 보긴 어렵다. 추정컨대, 평양 산음동 미사일 단지에서 각종 엔진실험을 거치며 개발 중인 중간 단계의 무기를 일정한 외형을 갖춘 실물로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6.12 북미공동성명에 따라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상발사실험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상발사실험과 실전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기를 공개한 것은 ICBM의 질적·양적 진화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메시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란이 다탄두미사일 개발 성공을 공개한 적이 있고 이란과의 미사일 커넥션이 아직 작동하고 있다면¹⁾, 다탄두 탑재형 ICBM 개발 성공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연될 경우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상발사실험이 가시화된다면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그 어느 무기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북극성-4A’로 표기된 무기다. 열병식에서 ‘수중전략탄도탄’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로 볼 수 있다. 2019년 10월 2일 실험 발사한 북극성-3형(직경 1.5~1.6m)보다 직경이 다소 더 굵어져 신형 무기로 볼 수 있다. 기존 잠수함용보다는 신형잠수함 탑재용으로 추정된다. 탄두부의 모양으로 보면, 이 역시 다탄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무기 역시 공개된 실험발사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개발 중인 중간단계의 실물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미사일을 탑재할 잠수함 건조 역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라 아직 완성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ICBM과 북극성-4A SLBM의 지상 엔진실험이나 발사실험이 곧바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무기가 갖는 위협도가 높고 북미가 합의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먼저 깨는 행보로 차기 미국 행정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의 ‘다탄두’로의 진화는 저장도 핵탄두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ubmarine-Launched

1) 미국 의회조사국(CRS),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 (2019. 3.) 참조. 이란의 다탄두미사일 개발과 북한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연구원,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79;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 전망,” (Online Series CO 20-01, 2020. 1. 2.), p. 5 참조.

Cruise Missile: SLCM)이나 초음속순항미사일, 다탄두미사일 개발 등의 최근 동북아 핵무기 경쟁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변화된 미국의 핵정책이나 동북아 군비경쟁에서 보면, 기존의 단발형 ICBM이나 SLBM은 전략적으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 번째로 주목할 무기는 2019년 이후 실험발사를 통해 공개했던 초대형방사포(합참식별부호 19-5), 신형대구경조정방사포(19-2, 19-3), 신형전술유도탄(19-1,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19-4, 북한판 에이태킴스), 대공미사일(번개시리즈, 북한판 S-400)이다. 이들 무기는 북한의 포병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개발된 무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의 무기 도입 및 개발, 한반도의 미군 전력에 대응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무기들의 다중화와 고도화의 행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 조성되는 정세에 따라 발사실험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8차 당대회 개최를 통한 새로운 경제정책 및 내부 혁신 약속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을 통해 제8차 당대회에서 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보통 당대회에서는 향후 5년간 견지해야 할 ‘전략적 노선’이 제시되는데,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6개의 전략적 노선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당창건 75주년 연설에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위해 제8차 당대회에서 그 실현을 위한 방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발전,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번 개최될 제8차 당대회에선 자위적 국방력 건설에 걸 맞는 새로운 경제정책 제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30분에 걸친 연설에서 연 초부터 강조했던 ‘정면돌파전’, ‘자력갱생’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경제정책 수립이 경제 운영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대외적 전략 노선은 제7기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정면돌파전, 대미 장기전, 전략무기 지속개발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80일 전투를 통해 올해 계획했으나 달성하지 못한 몇몇 대상건설의 완공을 상징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제8차 당대회로 결속 분위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 1일 제8차 당대회 개최 가능성과 미국 대선 이후 변수

북한의 제8차 당대회는 2021년 1월 1일 개최 가능성이 있다. 최근 ‘80일 전투’를 받기할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주문하였고 이 전투는 당창건 기념일 직후부터 카운트될 경우, 12월 29일 종료된다. 70일 전투 3~4일 후 당대회를 개최했던 제7차 당대회를 참고한다면, 1월 1일 개최 가능성이 있다. 5년 주기, 연주기로 당대회가 정확히 끊어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런 관행을 만들기 위해 1월 1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1월 1일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다면 대외적 전략노선, 특히 대미 메시지가 돌출적으로 제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인 것도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정리되고 차기 행정부가 얼마나 빨리 취임식 이후로 대북 입장을 정리하느냐도 변수다.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미국 내 정치적 혼란이 올 가능성, 미국 차기 정부 출범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회를 통해 대미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와 종전선언을 축으로 한 한국의 정세관리 필요성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 곳곳에서 코로나19 국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리더십을 부각하는 데 할애를 했다. 단 한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이 건강하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고 주민들의 ‘무병무탈’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실제 행사에 참여한 군대와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당창건 75주년의 최대 성과로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제8차 당대회도 방역 성공을 주요 성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관계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통제되는 역량 확보와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과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 환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되는 정세 불확실성을 관리할 두 개의 정책 축으로 삼는 고민이 필요하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